

[바둑]

이창호만 만나면 주눅, 한·중 오가는 강행군에 승률 저하

“이세돌, 부족한 2% 채워라”



이세돌이 지난 21일 서울 삼성화재 본사에서 열린 제13회 삼성화재배 세계바둑오픈 결승에서 우승했다. (사이버오로 제공)

올해에는 이세돌이 천적 이창호의 강한 도전을 물리치는 등 자신의 부족한 2%를 극복하고 세계 최정상 자리를 지켜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선택과 집중’으로 강동윤·콩지에 등 국내외 기사 도전 넘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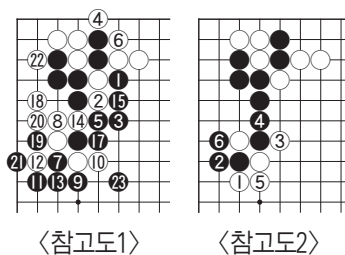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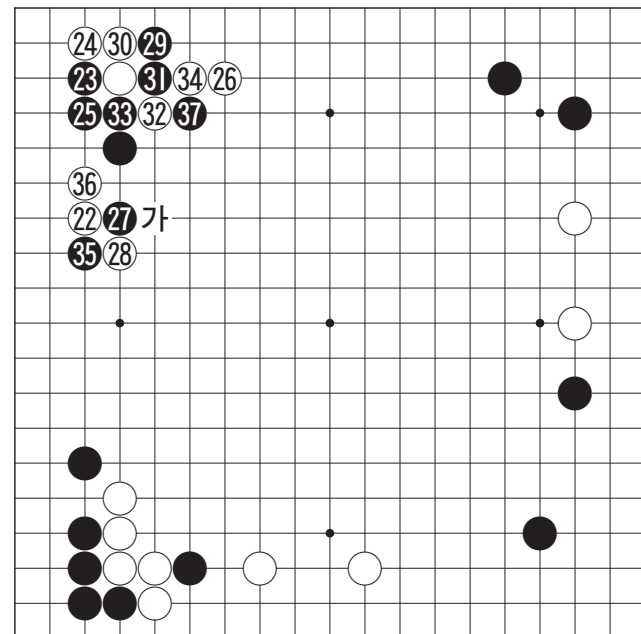
이세돌 9단의 천하가 계속되고 있다. 이세돌은 최근 제20회 TV바둑아시아선수권대회 우승, 개인통산 1천국 달성, 제1회 세계마인드스포츠게임 남자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다. 최다연속 국내랭킹 1위 기록 등 많은 기록을 수립하면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또 지난 21일에는 제13회 삼성화재배 세계 바둑오픈까지 따냈다. 지난해 우승에 이어 2연패이다. 하지만 천하의 이세돌에게도 2% 부족한 면이 있다. 새로운 천적으로 떠오른 이창호만 만나면 힘을 쓰지 못했다. 지난해 이창호와의 전적에서 응씨배 패배 등을 비롯해 1승(4패)에 그치는 부진을 보였다. 또 중국리그에 참가하며 한·중을 오가는 살

인적인 일정 때문에 기대보다는 승률이 낮은 점도 ‘육의 타’다. 이세돌은 지난해 74승26패(74%)로 다승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비공식대국인 중국갑조리그에서 거둔 8전 전승의 전적이 공식기록에 집계되지 못하면서 승률상을 51승16패(76%)의 최철한 9단에게 내주었다. 이세돌은 지난해 서울, 상하이, 베이징 등지를 오가며 중국갑조리그 참가를 위해 강행군을 했다. 이세돌은 ‘승리할 경우 10만위안, 패하면 한 푼도 없다’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2004년 처음 중국리그 구이저우팀에 발을 담그면서 1억5천만원 가량의 부수입을 챙겼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경기에 나서다 보니, 한·

중리그 모두에서 팀의 기동 역할을 하진 못했다. ‘2008한국바둑리그’에서도 소속팀인 제일화재는 정규리그에서 4위를 차지하는 부진을 보였다. 이세돌 9단은 개인적으로 한국바둑리그에서 13승 3패(포스트시즌포함)의 성적을 거두었지만 팀은 결국 챔피언결정전 진출이 무산됐다. 구이저우팀도 만년 2위다. 착실하게 개인 승수를 쌓고 있는 있지만 두 나라의 리그에서 팀 전력을 끌어 올리는 기동 역할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뼈뺀 일정은 ‘이세돌 결승 진출=우승’이라는 공식도 됐다. 이세돌은 지난해 7월 홍성지 7단과 맞붙은 한국물가정보배 결승에서 패했다. 세계 최정상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세돌은 이창호, 강동윤, 박영훈 9단 등 국내 기사들과 구리, 장쉬, 창하오 9단, 콩지에 7단 등 해외과의 도전을 받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기가 된 것이다.

제5회 서구청장배 바둑대회

정석의 유행
학생부 결승전 2보 (22~37)
白 국승찬 5단 <문성고 2>
黑 김근홍 5단 <전자공고 2>



유행은 패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석도 시대나 성적이 뛰어난 기사들에 의해 유행이 바뀌곤 한다. 백 22가 최근 유행하고 있는 협공이며 흑 27로 벌인 수가 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수법이다. 이 수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로 두

는 수가 이창호 9단의 전매특허였다. 흑 35로는 ‘참고도 1’의 흑 1로 먼저 끊고 3으로 정문을 한 다음 복잡한 수순을 거쳐 흑 23까지 되는 것이 최근에 많이 두어지는 정석이다. 국승찬군이 바로 흑 35로 끊어서 김근홍군이 불쌍 백 36으로 늘어 버렸는데 이 수가 흑 37로 끊는 수를 감박한 대실수가 되었다. 이 수로는 ‘참고도 2’의 백 1, 3으로 물고 5로 이어야 했다. 흑 37로 끊겨 뭐가 걸려든 것같은 분위기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도 골프처럼’ 컷오프제 도입

비씨카드배 세계 첫 시행...아마추어·연구생도 참가

바둑도 골프대회처럼 일정 이상 성적을 낸 선수에게 상금을 주는 컷오프제가 도입된다. 한국기원은 지난 22일 서울 태평로 프라자호텔에서 비씨(BC)카드와 조인식을 하고, 64강 이상 진출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제1회 비씨카드배 월드바둑 챔피언십’을 출범시켰다. 바둑 컷오프제는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바둑대회는 주로 프로기사에게만 문호를 개방했고, 기사들은 승패와 상관없이 출전하기만 하면 일정액의 대국료를 받았다. 총상금 규모는 7억4천200만원, 우승상금은 3

억원이다. 비씨카드배는 일반 아마추어와 한국기원 연구생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 이 대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우승 상금과 기존과는 다른 대회 운영 방식으로 전세계 바둑계에 신선한 반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프로 기사급 실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입단 문호로 인해 입단이 지체됐던 한국기원 소속 연구생 70명에게 2차 아마에선 출전 자격을 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일반인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연구생들의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 대회는 오는 2월15일 온라인 아마 예선을 시작으로 8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게 된다. 예선은 2월25일까지이며, 같은 달 28일부터 4월30일까지 본선 64강 단판 승부로 결승 진출자를 뽑는다. 5월1일부터 결승 5번기로 반상의 기준을 가려낼 예정이다. 1차 온라인 아마 예선에는 바둑을 좋아하는 아마추어 바둑인이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무명의 아마추어 선수라도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프로 기사들과 대국할 수 있는 ‘꿈의 무대’에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한시간은 각자 1시간, 초읽기 30초 3회, 바둑TV와 네이버를 통해 본선 64강부터 결승 5번기의 대국이 생중계될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16세 박정환’ 원익배 품다

백홍석 꺾고 이창호 이어 국내 두번째 최연소 우승

올해 만 16세인 박정환이 입단 2년 8개월 만에 본격기전에서 타이틀을 따냈다. 지난 18일 서울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4기 원익배 십단전 결승3번기 2국에서 박정환이 백홍석 6단을 209수 끝에 불계로 물리치고 종합전적 2-0으로 생애 첫 우승 컵을 차지했다. 박정환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초읽기에서도 시종일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 대국을 지켜보는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준결승전에서 이창호 9단을 꺾고 결승전에 진출한 박정환 3단은 ‘침착함의 대명사’ 이창호와의 승부에서도 만만치 않은 침착

함을 보이며 승리를 따냈다. 지난 2006년 5월 입단 관문을 통과한 박정환은 2007년 열계급 마스터즈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국내외 각종 기전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박정환 3단은 ‘국내 3대기전(명인전, GS칼텍스배, 전자랜드배) 우승시 2단 승단, 준우승 1단, 기타 본격기전은 우승시 1단 승단, 준우승은 가산점 200점이 더해진다’는 규정에 따라 4단으로 승단했다. 한편 국내 최연소 챔피언에 오른 기사는 11살 입단 뒤 14살 때 KBS바둑왕을 쟁취한 이창호 9단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철녀’ 루이, 여류명인전 5연패

‘여자 이창호’ 조혜연 놀러

‘철녀’ 루이아이웨이가 ‘여자 이창호’ 조혜연을 놀렸다.

루이아이웨이 9단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스카이라이프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0기 여류명인전 3번기 최종국에서 도전자 조혜연 8단을

260수 만에 불계로 이겼다. 그녀는 종합전적 2승1패로 5년 연속 여류명인전 자리를 지켰다. 상금 1천200만원. 조혜연은 1국에서 반집 차로 이겼다. 하지만 1국 패배 뒤 투혼을 발휘한 루이아이웨이의 벽을 넘지 못했다. /오광록기자 kroh@

이세돌 바둑 포석 배워볼까!

월간 바둑 2월호 발간

월간 ‘바둑’ 2월호가 나왔다. 이번 호에는 2008 바둑대상과 KB국민은행 한국바둑리그 시상식, 이세돌 9단의 제36기 하이원배 명인전 우승, 구리 9단의 도요타텐소배 우승 소식 등 화제가 된 명국 기보를 담았다. 또 2008년 바둑계 총결산 기사와 제36기 하이원배 명인전 결승 4국(이세돌 9단·강동윤 8단) 기보를 통해 최근 무섭게 집주하고

있는 이세돌의 짜임새 있는 포석을 소개했다. 중국동포 박문오의 결승 진출로 관심을 모은 제4회 도요다텐소배의 최종국(결승2국)을 조병하고, 제7회 정관장배 스타 송용해 초단의 7연승을 저지한 여전사 박지은의 기보를 화제국에서 다뤘다. 이밖에 바둑을 통해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는 도산 스님을 탐방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www.kimyoung.co.kr
그동안 12만 5천여명 편입합격!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바로 뒤 (062)227-8088

합격은 김영에서

전대편입특설반/ 일반편입/ 학사편입
사범대편입/ 의·약대편입/ 의·치약전문대학원
★ 2010년 김영스쿨 신입생모집
편입관련 문자상담 010-7766-1254

2010학년도 편입대비

- 2010학년도 편입대비
- 기초부터 알기쉽게
- 편입영어 입문 및 기본과정
- 문법, 독해, 어휘 MT(조별토론학습)

대학편입 대개강 : 2월 2일

=無等은 선배 공무원들이 입증하는 전국 유일의 명문학원임을 자부한다!!! =

7.9 급 공무원 특강

주 전직렬 야 전직렬	성황리 강의중	9 문제풀이반 개강 2월 2일
=시험안내= ● 시험일자 : 9급 7월 11일, 재경 7월 23일, 7급 7월 25일 시행 ● 채용인원 : 국가직 3,267명, 지방직 총 4,242명 모집 ※서울 903, 경기 685, 전남 309, 광주 119, 전북 206명		10 기능직 : 월급상차 개강 : 2월 6일

개강 소방직 : 사·도별 채용인원 : 단독반·이 명 호 교수님

- 서울 300명, 부산 82명, 대구 94명, 인천 277명, 광주 92명
- 대전 78명, 울산 42명, 경기 273명, 강원 179명, 충북 113명
- 충남 168명, 전북 120명, 전남 280명, 경북 128명, 경남 110명

무등고시학원

www.mdgosl.co.kr ☎ 222-4560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 45년 전통 ● 광주지역 최다 합격자 배출!!
● 본원출신 전국수석 (송은영님 평균 96.7점)

최강의 교수진 "저자직강" 전원 서울에서 출강!

주택관리사 "2009년 9월 20일 시험" 대개강 2월 2일

광주고시학원

직장인을 위한 교육보험 합금과정
국비지원 **재강합정** **합정** **합정**

본원 ☎ 227-8003 전남여고 맞은편 3층
합정원 ☎ 971-0002 광주은행 칠현점 4층